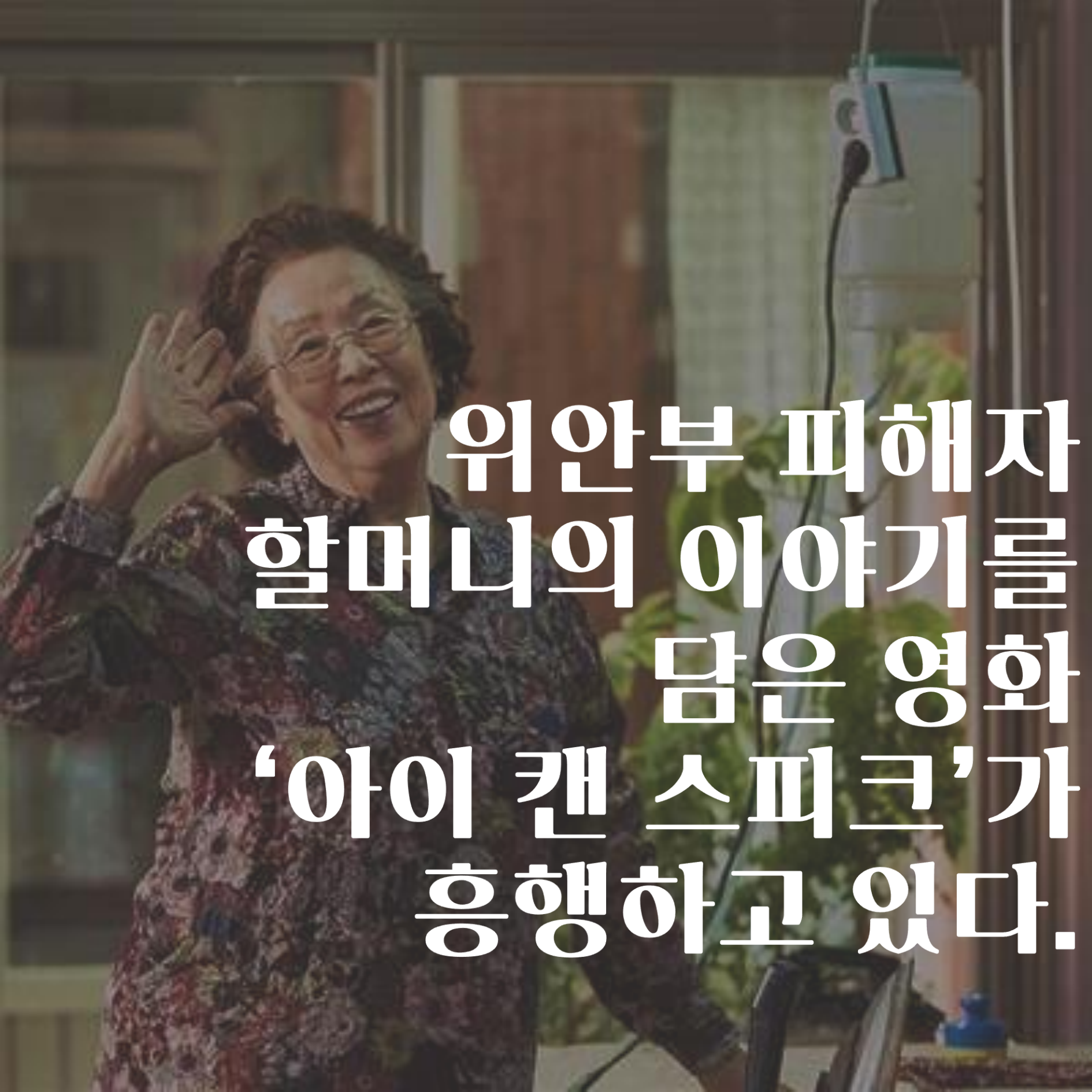




아이 캔 스피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이 캔 스피크’가
흥행하고 있다.


| 영화의 하이라이트

과거 위안부였던 옥분이
평생을 삼켜왔던 울분과 치욕의
과거를 이겨내고
청문회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는 장면.
2007년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통과됐던
미 하원 의회 공개 청문회를
재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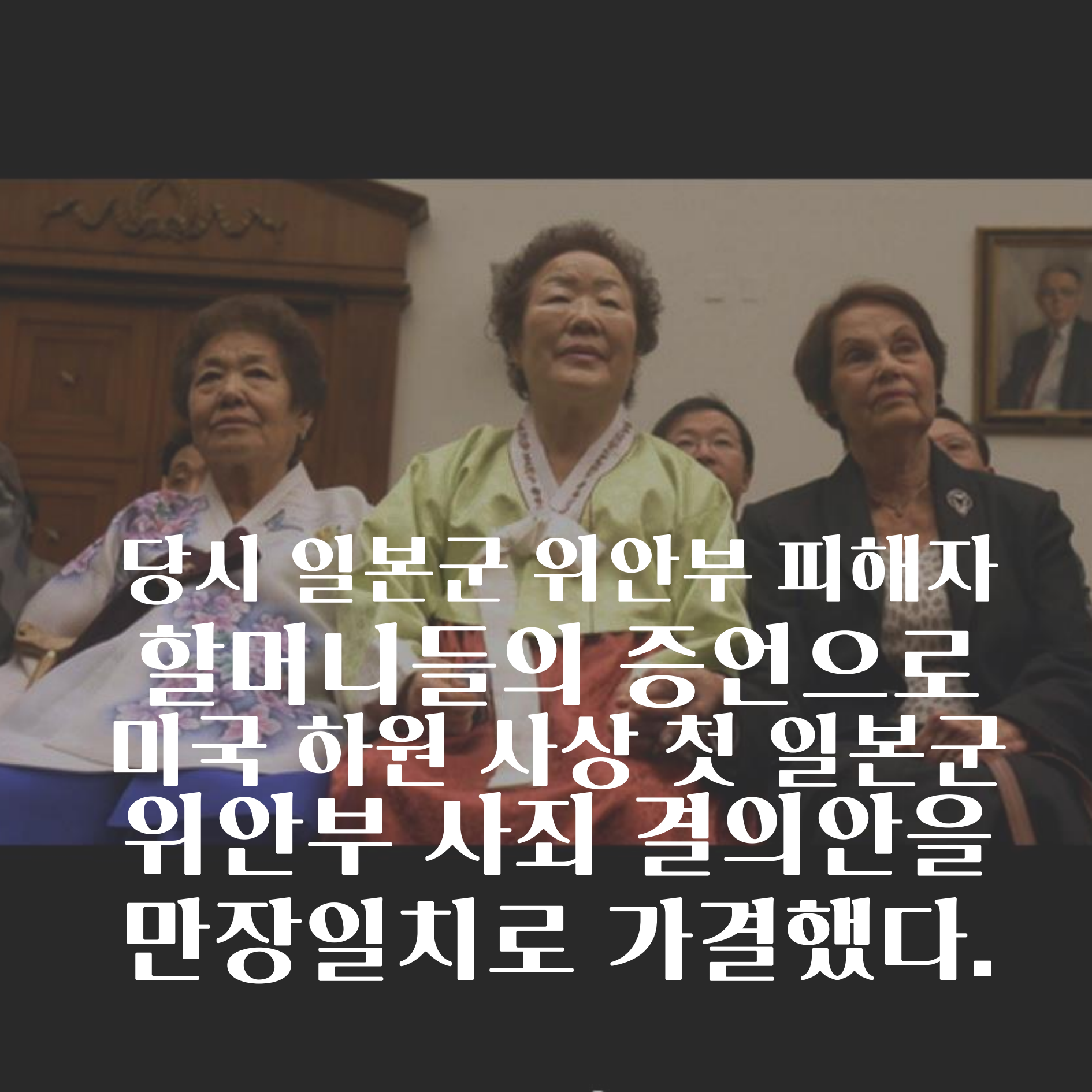
영화가 화제가 되자
실제 2007년 2월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가 연
실제 청문회 현장도
재조명되고 있다.





"죽기 전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미국 땅까지 오게 됐다"

故 김군자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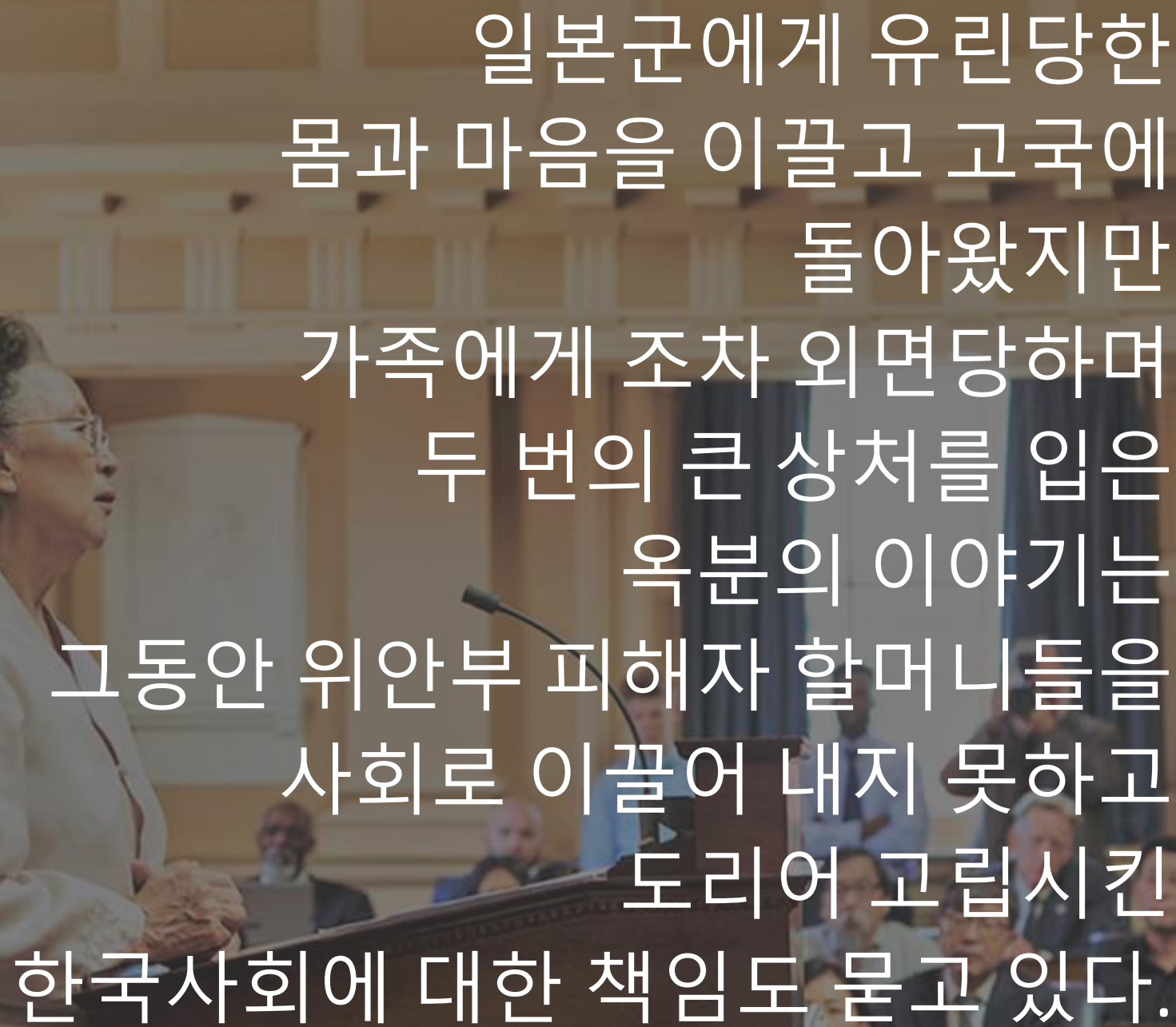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미국 하원 사상 첫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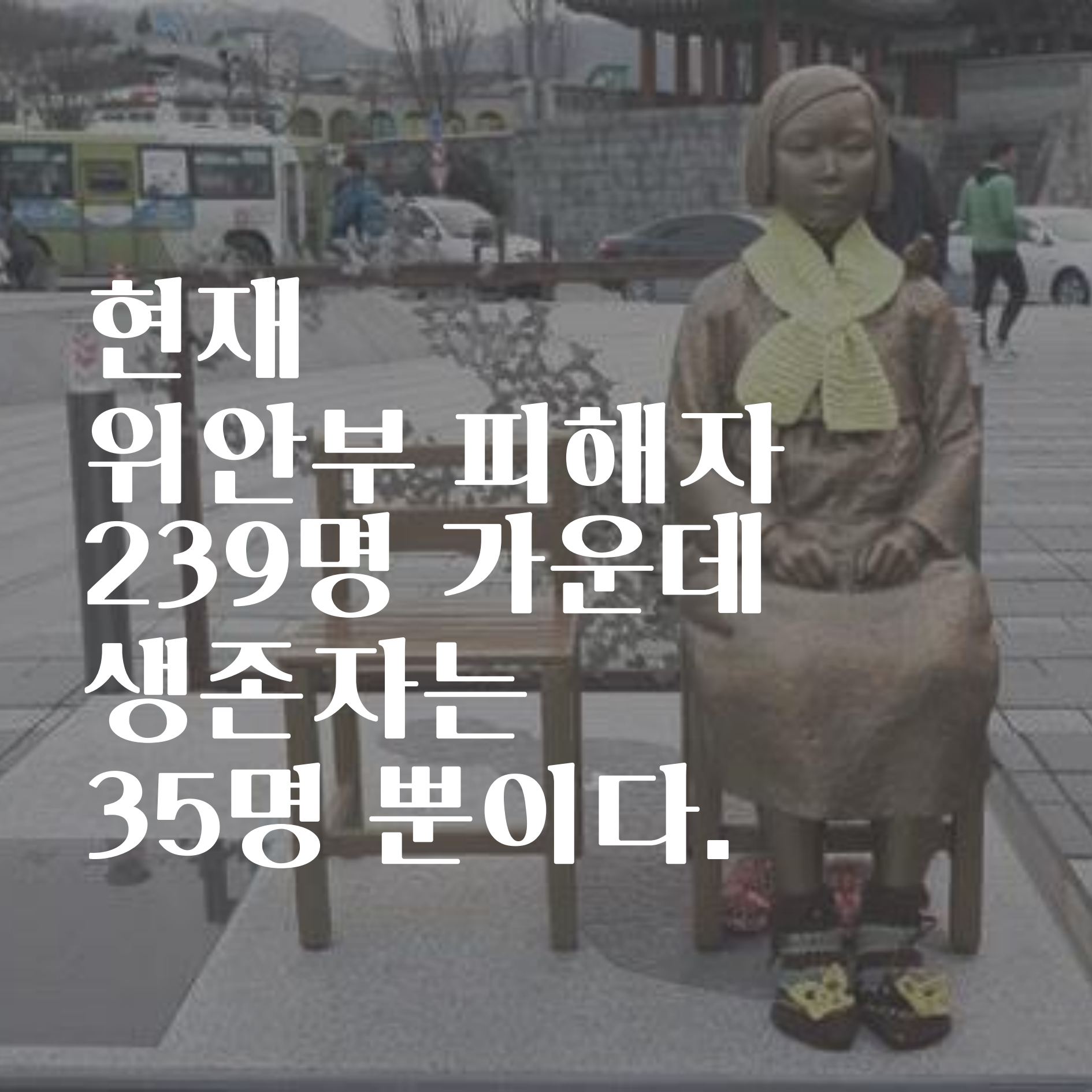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아이 캔 스피크'에서는
일본에 분노를 보이는 동시에
우리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질책이 담겨있다.




A woman with short, curly hair and glasses, wearing a light-colored blazer, stands at a wooden podium in a large, ornate hall. She is looking to her right, speaking into a microphone. The background shows rows of wooden pews and a high ceiling with decorative panels. The text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일본군에게 유린당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며
두 번의 큰 상처를 입은
옥분의 이야기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도리어 고립시킨
한국사회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35명 뿐이다.

A group of people, including a woman speaking at a podium, with the US Capitol dome in the background. The woman is wearing glasses and a white shirt. She is surrounded by other people, some of whom are also wearing glasses. The background shows the US Capitol dome and some trees.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A close-up shot of an elderly woman with short, dark, curly hair and glasses. She has a serious, almost stern expression on her face. She is wearing a light-colored, possibly white, top. In the background, another person is visible but out of focus. The lighting is soft, and the overall tone is somewhat somber.

**“잊어버리면
내가 지는 거니까.”**

-아이 캔 스피크 中 옥분의 대사